

# 미래도시·미래주거

한샘 DBEW 연구재단이 보는 미래사회의 도시와 주거

2019.12.

## 1. 현 도시의 문제점

산업문명 사회에 최적화 되어 있는 현 도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와 이를 지원하는 대도시,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인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으나 반대급부로 여러 문제점을 파생시켰다. 현재의 도시, 특히 대도시들은 1)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실패비용이 과다하며, 2) 에너지와 자원을 과소비하게 한다. 또한 3) 익명성을 얻는 대신 이웃, 마을 등의 공동체가 상실되고 4) 대도시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을 황폐화 시켰다.

## 2. 디지털이 가져올 변화

농업사회는 인쇄술 덕분에 산업사회로 대전환 될 수 있었다. 필사로 지식을 전달하던 농업사회는 당시 5% 정도이던 왕족이나 귀족만이 지식의 혜택을 누렸으나 이후 활자인쇄의 개발로 비록 일방향이기는 하지만 지식을 대량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대중들도 지식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산업사회로 탈바꿈 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 이전 사회에서는 없었던 자유·평등의 인권, 민주주의, 자본주의, 금융과 기업 등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사회로 발전하였다. 도시 또한 이러한 사회 변화에 궤를 같이 하며 도성도시에서 대도시로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소량·대량 상관 없이 쌍방향 지식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은 그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은 직장, 교육, 의료, 문화 등 원하는 서비스나 기능을 얻기 위해서 특정 건물이나 장소로 가야 하지만 디지털은 이러한 서비스나 기능 대부분을 우리에게로 가져다 줄 것이다. 디지털은 시간, 공간, 비용의 문제를 초월하면서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회 모습과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도시는 이제 변할 수 밖에 없다.

## 3. 새로운 도시의 필요성

현 도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디지털이 가져올 변화를 담아낼 도시가 필요하다. 전 세계 도시화율이 절반을 조금 넘어섰고 중국을 비롯한 후발 도시화 국가들이 급속하고 거대하게 도시화를 진행하고 있다. 작금의 도시화가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화 방식으로 된다면 전 지구적 위기이다. 지금은 새로운 방식의 도시가 연구 개발되고 미래형 도시화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 4. 미래도시 방향성

미래도시는 다음 단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즉 1) 지속불가능의 극복, 2)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3) 동·서양 융합 통한 새로운 시대까지 추구이다. 솔루션 제공을 위해서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창조력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지방 소도시가 유력한 대안이 된다. 다만 지방 소도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필히 갖추어야만 미래도시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1) 지방 소도시도 대도시 못지 않은 삶의 질을 확보, 2) 지방 소도시도 대도시 못지 않은 산업경쟁력을 확보, 3) 소도시 기반 공동체로 시민 관계 증진 및 갈등 최소화 하는 전략이다.

#### 5. 미래주거 방향성

미래주거는 미래도시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즉 1) 디지털라이프 구현의 장: 도시생활 대부분을 재택근무, 디지털교육, 원격진료 등의 방식으로 주거지인 집에서 영위하도록 해주고 2) 가정 역할 수행 지원: 자녀 교육, 삶의 즐거움과 기쁨, 재충전이라는 가정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면서 3) 주거유형별 방안 제시: 싱글, 신혼, 3~4인 가구 등 주거유형별로 공간적 주거 솔루션을 마련하여 준다.

#### 6. 미래도시·미래주거 가설

이러한 관점에서 선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 A. **(삶의 질 확보 방안인 디지털공공재)** 지금의 수도, 전기, 도로처럼 디지털화된 근무,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공공재화 되어 시민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미래도시 실현을 위해 국가가 우선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 B. **(미래도시 유력 대안인 지방 소도시)** 이러한 디지털공공재 생활기반 덕분에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국가가 인증하는 기본적 삶의 질을 제공 받습니다. 지방 소도시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창조력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도시가 됩니다.
- C. **(미래도시에서의 집)** 디지털공공재 생활기반은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친숙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 주거는 디지털라이프를 구현하는 스마트홈으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 D. **(미래도시의 물리적 구성)** 도시 기능 대부분이 디지털로 서비스되면서 도시는 커져야 할 필요가 없으며 미래 도시의 물리적 건설은 보육, 체육 같은 체험 시설, 상호 대면이 필요한 지식/벤처 생태계 시설, 주거 시설 위주가 될 것입니다.
- E.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인 도시창조생태계)** 미래도시 산업경쟁력은 특화전문 분야를 선택/집중하고 지식/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당 분야 창조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확보합니다. 시정부는 이러한 창조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 F. **(소도시 네트워크)** 소도시도 작은 인구 규모로 인하여 시설 설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도시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합산 인구 규모에 따라 필요 시설을 확보합니다.
- G. **(도시공동체 소도시)** 소도시는 경제나 생활 방식에 대해 서로 합의하는 사람들로 시민 공동체가 구성되어 경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갈등은 최소화 됩니다. <끝>